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Warm Parenting on Adolesc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via Cognitive Empathy and Cooperation

1차원고접수: 2023.07.10. 수정원고접수: 2023.08.24. 최종게재결정: 2023.09.15.

한세영¹ · 조연수² · 유설희³

¹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²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객원 교수

³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Han, Sae-Young¹

Cho, Yeon Soo²

Yoo, Seolheui³

¹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²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The University of Suwon

³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가족생태학(family ecology)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자료 중 2021년도에 조사된 중학교 1학년 2,240명(남학생 1,129명, 여학생 1,11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PROCESS macro version 4.2(Hayes, 2022)의 Model 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관련하여,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학교생활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인지적 공감 및 협동심을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인지적 공감 및 협동심의 매개효과는 각각의 경로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며, 이중 매개효과도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가족관계인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내적요인에 작용하여 학교 내 대인관계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쳐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에 기여하게 되는 과정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부모의 온정적 양육, 협동심, 인지적 공감, 학교생활만족, 청소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rect impact of adolescents' perceived warm parenting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the indirect impact through cognitive empathy and cooperation. To achieve this, the study focused on the cohort data of 2,240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1,129 male students, 1,111 female students) surveyed in 2021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produc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Model 6 of the PROCESS macro version 4.2 (Hayes, 2022).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cerning the direct impact of adolescents' perceived warm parenting on school life satisfaction, warm parenting was found to have a sta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school life satisfaction. Second, regarding the indirect impact of adolescents' perceived warm parenting on school life satisfaction through cognitive empathy and coopera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pathy and cooperation were both significant in each respective path, and the dual mediating effect was also confirm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adolescents experiencing various difficulties in school life.

Keywords warm parenting, cognitive empathy, cooperation, school life satisfaction, adolescent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논문을 수정 ·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조연수 (Cho, Yeon Soo)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객원교수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The University of Suwon) E-mail. yeonsoo401@gmail.com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지적·정서적·신체적인 제반 특성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로서 심리적으로는 나 자신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감을 찾아가고, 사회적으로는 독립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시기이다(한상철, 2012). 또한 청소년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학업을 통해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고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며 정서·사회적 발달을 도모한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청소년 중 51.1%만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는데(통계청, 2022), 이는 2년 전 결과보다 8.2%나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현재의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청소년들의 학교 경험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학교생활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였을 때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여성가족부, 2023), 이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면서 겪는 발달적 변화와 학업 중심의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심리적 부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새로운 학교문화에 적응하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더욱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학교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가족생태학(family ecology)은 아동의 발달을 아동의 유전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설명하는 이론이다(Bronfenbrenner, 1979). 이 이론에서는 아동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미시체계(microsystem)인 가족과 가족 기능(family functioning)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가족 기능이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조직, 서로에 대한 기대와 지원을 의미한다(Bartlett & Palisano, 2000).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의사소통, 격려, 감사 등 가족의 여러 측면이 가족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Krysan, Moore, & Zill, 1990).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였을 때 가족 내에서 경험한 부모로부터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지원은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사회적 역량을 함양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부모-자녀 관계는 생애 최초의 관계이자 가장 밀접한 사회적 관계로서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명순, 김종운, 2014).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족생태학의 측면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힘으로써 청소년들의 학교 경험을 개선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교생활만족(school life satisfaction)은 학교생활의 질적 측면에 대한 인지적 및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Huebner, Ash, & Laughlin, 2001). 즉 학교생활만족은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조화롭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 내에서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의 규범에 순응하여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구보람, 2013). 학교는 아동이 가정이라는 일차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교사 및 또래와 집단생활을 하며 사회성을 기르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가족생태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정에서 아동이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개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방식을 통해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테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적응을 촉진시키는 요인(박은혜, 황성동, 2010; 이유리, 박은정, 이성훈, 2018)이며, 학대나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가화, 이지민, 2014)가 보고되었다. 특히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Nickerson & Nagle, 2004)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Hampden-Thompson & Galindo, 2017),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한 청소년은 학교에 더욱 잘 적응하며(이복희, 2014), 부모의 온정적이고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은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혀져 왔다(박선희, 2021; Li, Deng, Wang, & Tang, 201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녀의 일차적 미시체계인 가정에서 경험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또 다른 미시체계인 학교에서의 경험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가정 내에서 경험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에서 경험한 부모로부터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자녀로 하여금 모델링을 통한 학습을 가능하게 함과 더불어 자녀의 안정된 정서와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역량 중에 하나로 공감능력(empathy ability)을 꼽을 수 있다. 공감(empathy)은 타인의 감정, 심리상태, 그리고 내적인 경험을 마치 자신이 겪은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며, 상호간에 의사소통하는 복합적인 과정을 포함하며, 인간관계를 가장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Rogers, 1975). 따라서 공감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Smith(2006)는 공감능력을 다른 사람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공감(emotional empathy)과 타인의 정서나 생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인지적 공감(cognitive empathy)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 정서적 측면의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인지적 측면의 공감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사고와 감정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Chandler,

1974).

단순히 타인과 같은 감정 상태를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과 달리,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적 상태에 대한 인지적인 인식 및 조망수용능력(perspective taking)의 발달을 포함하기 때문에(Farrant, Devine, Maybery, & Fletcher, 2012), 가정을 벗어나 또래 및 교사와의 보다 복잡한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데 중요한 능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의 의도와 생각을 잘 인식하는 학생은 수업이나 과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 있으며,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친구들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할지, 어떤 생각을 하도록 할지 등을 잘 인식하는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의 수준은 학교 내에서 만나는 또래 및 교사의 의도와 생각, 감정을 읽어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보다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Selman(1980)에 의하면, 초기 청소년기에는 인지적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제 3자적 조망수용능력을 발달시키는 시기이며, Derscheid(1997)는 이러한 조망수용능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발달적 변화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습득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정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을 경험한 청소년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호작용 방식을 자연스럽게 학습하여 타인의 의도 또는 감정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가정에서의 학습은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수준에 영향을 주어 학교 내에서 기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도움으로써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공감과 이타적 행동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Mussen & Eisenberg, 2001),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격려하고(Denham & Couchoud, 1990), 부모-자녀 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잘 반응하는 상호작용을 할 때(문연심, 2004), 그리고 부모-자녀 간에 애

차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 자녀의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왔다(이주혜, 조영아, 2014; 채영문, 박수진, 2013). 유아기 자녀의 인지적 공감과 어머니의 양육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Farrant et al., 2012)에서도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 수준은 자녀의 인지적 공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은 자녀의 인지적 공감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자녀에게 애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이 인지적 공감을 포함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김은경, 2009; 이명순, 김종운, 2014),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은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따뜻한 말과 행동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함양된 협동심을 통해서도 학교 내에서 긍정적인 집단 관계와 원활한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협동심(cooperation)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 능력으로,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인구, 2003). 따라서 협동심이 높은 청소년들은 집단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고, 개인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학교생활에서 더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은 자녀의 이타적 행동 수준과 관련이 있었고(McGrath, Zook, & Weber-Roehl, 2003), 자녀의 협동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김연희, 정혜원, 2021), 협동심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좋아지고(이영효, 정주리, 2017), 집단 따돌림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박완성, 정구철, 2016), 높은 학업 성취와 학업 열의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박유경, 이금규, 김유정, 이강이, 2022)가 보고되었다. 이는 부모의 따뜻한 말과 행동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발달을 돕고, 집단 내에서 협력과 협동을 증진시켜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온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부모의 모델링을 통해 형성된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심에 영향을 주어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도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감은 협동을 포함하는 친사회적 성향(Hoffman, 1982)이나 행동(Eisenberg & Miller, 1987)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의 공감 기술이 높을수록 협동 기술도 높다는 연구결과(박완성, 정구철, 2016)가 있다. 특히 협동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감능력 중에서도 인지적 공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간주된다. 협동심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공유된 의도(shared intention)’를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Gilbert, 2009), 이러한 집단 내부에서 공유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협력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측면의 인지적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Fiebach, 2019). 실제로 황수영과 윤미선의 연구(2018)에서는 협동을 포함하는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청소년의 정서적 공감보다 인지적 공감이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인지적 민감성이 도덕적 판단을 도울 수 있다(Decety & Cowell, 2015; Decety & Yoder, 2016)고 해석하였다. 즉 인지적 공감은 친사회적 도덕 추론을 가능하게 하여(Paciello, Fida, Cerniglia, Tramontano, & Cole, 2013), 타인과 함께 생활함에 있어 보다 협력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온정적 양육은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개인적 역량인 공감과 협동심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 내에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도움을 주거나 받는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족생태학의 관점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자료 중 2021년도에 조사된 중학교 1학년 남녀 청소년 2,275명 중 학교생활만족에 명확하게 응답한 2,240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은 초등학교에서 상급 학교인 중학교로 진학하는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낯선 학교 환경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또래 및 교사 등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정송, 우연경, 송주연, 노연경, 2022).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급격한 학교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청소년이 1,129명(50.4%), 여자 청소년이 1,111명(49.6%)이었다. 또한, 학교를 기준으로 한 지역 규모의 경우, 대도시가 964명(43.1%), 중소도시가 906명(40.5%), 읍면지역이 368명(16.4%)이었다(결측값 제외).

2. 측정도구

1) 부모의 온정적 양육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Korean Version of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PSCQ_KA)를 타당화 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파스함(4문항), 거부(4문항), 자율성지지(4문항), 강요(4문항), 구조제공(4문항), 비밀관성(4문항) 등의 6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파스함 문항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온정적 양육을 살펴보았다. 문항의 예로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온정적인 양육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2) 인지적 공감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은 Baron-Cohen, Wheelw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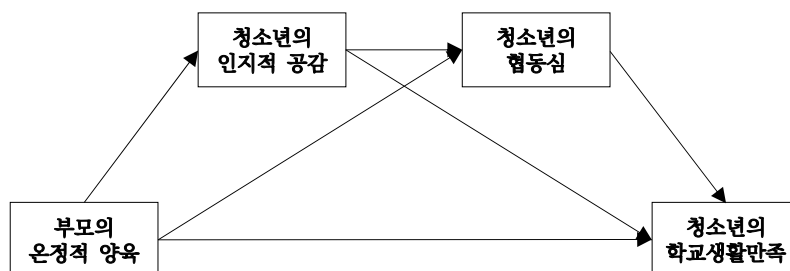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Spong, Scahill과 Lawson(2001)의 The Folk Psychology Test를 한국노동연구원(2017)의 한국노동패널 제20차 부가조사에서 활용한 2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람의 눈 사진을 보고 해당 상태가 어떤 감정인지 읽어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각 문항별로 눈 사진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한 단어를 맞게 응답한 경우 1점, 틀린 경우에는 0점으로 코딩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28개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를 합산하여 인지적 공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72이었다.

3) 협동심

청소년의 협동심은 김태준, 오민아와 이영훈(2015)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 : IEA ICCS 2016에서 활용한 협동 영역의 14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거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협동심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4) 학교생활만족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은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과 이계오(2010)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에서 제시된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한 학교생활만족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지난 학기 학교생활만족 수준을 묻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 및 '잘 모르겠음(6점)'으로 구성된 6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잘 모르겠음'에 응답한 35명의 자료는 학교생활만족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자료는 결측 처리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학교생활만족에 응답한 점

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PROCESS macro version 4.2 (Hayes, 202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예비분석으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협동심 및 학교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PROCESS macro version 4.2 (Hayes, 2022)의 Model 6을 이용하여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및 협동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들어가기 전, 예비분석으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협동심 및 학교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학교생활만족($r = .19, p < .001$)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r = .12, p < .001$) 및 협동심($r = .23, p < .001$)과 학교생활만족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인지적 공감($r = .17, p < .001$) 및 협동심($r = .34, p < .001$)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 간에도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r = .14, p < .001$).

표 1. 부모의 온정적 양육,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협동심 및 학교생활만족 간의 상관관계 (N = 2,240)

	1	2	3	4
1. 부모의 온정적 양육	-			
2.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17***	-		
3. 청소년의 협동심	.34***	.14***	-	
4.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19***	.12***	.23***	-
M	3.26	15.53	2.91	3.90
SD	.58	5.55	.53	.79
최솟값	1.00	1.00	1.00	1.00
최댓값	4.00	28.00	4.00	5.00

*** $p < .001$.

2.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및 협동심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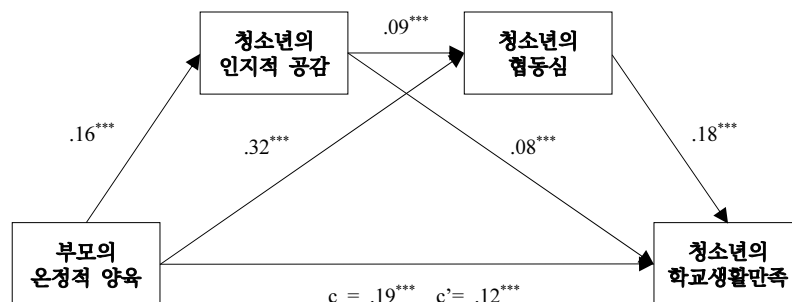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 version 4.2 (Hayes, 2022)의 Model 6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학교생활만족 ($\beta = .12,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로부터 따스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느낀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및 협동심을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beta = .16, p < .001$) 및 협동심($\beta = .32,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인지적 공감($\beta =$

표 2.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간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협동심의 매개효과 (N = 2,240)

경로	B	β	S.E.	t	R ²	F
부모의 온정적 양육 →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1.58	.16	.20	7.84***	.03	61.43***
부모의 온정적 양육 → 청소년의 협동심	.29	.32	.02	16.05***	.12	151.90***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 청소년의 협동심	.01	.09	.00	4.52***		
부모의 온정적 양육 →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16	.12	.03	5.42***	.07	57.15***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01	.08	.00	3.68***		
청소년의 협동심 →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27	.18	.03	8.08***		

*** $p < .001$.



주. c는 총효과, c'는 직접효과임.
*** $p < .001$.

그림 2.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간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협동심의 매개효과

.08, $p < .001$)과 협동심($\beta = .18, p < .001$)은 모두 학교생활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로부터 온정성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은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이나 협동하려는 능력이 높아졌으며, 이는 높은 학교생활만족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인지적 공감에서 협동심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에서 협동심 간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beta = .09, p < .001$)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정도도 높아졌고, 이는 높은 협동심으로 이어져 학교생활만족도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학교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인지적 공감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2, 95\% \text{ CI } [.0077, .0278]$)와 협동심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8, 95\% \text{ CI } [.0568, .1002]$)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인지적 공감 및 협동심의 매개효과는 각각의 경로에서 모두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인지적 공감 또는 협동심을 거쳐 학교생활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인지적 공감에서 협동심을 거쳐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0, 95\% \text{ CI } [.0017, .0057]$)도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인지적 공감 및 협동심의 이중 매개효과도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인지적 공감에서 협동심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가족생태학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협동심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그리고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수준이 높았다. 이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박선희, 2021; 이복희, 2014; 이유리 등, 2018), 아동발달에 있어 다양한 미시체계 중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족생태학의 관점(Bronfenbrenner, 1979)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따뜻함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또 다른 미시체계인 학교에서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기 이후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이 감소한다고 여겨지는 청소년기에도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애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는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초기 청소년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제도에 적응하고 그 적응 정도에 따라 만족감을 인식

표 3.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간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협동심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N = 2,240$)

경로	Effect	S.E.	95% CI	
			Lower	Upper
부모의 온정적 양육 →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02	.01	.0077	.0278
부모의 온정적 양육 → 청소년의 협동심 →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08	.01	.0568	.1002
부모의 온정적 양육 →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 청소년의 협동심 →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00	.00	.0017	.0057

하는 시기에 놓여있으므로 새롭게 변화된 환경을 맞이하고 적응하는데 부모가 온정적 태도로 안전감을 느끼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수준이 높았고, 인지적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모-자녀 간의 안정적 애착이 자녀의 공감능력을 높이고(이주혜, 조영아, 2014), 부모양육의 정서적인 측면이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을 함양하며(Farrant et al., 2012), 이를 통해 형성된 높은 공감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주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이명순, 김종운, 2014)와 맥을 함께 한다. 이는 상대방의 비언어적/언어적 신호를 잘 이해하고 그 신호가 나타내는 의미와 그에 맞는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단순히 연령에 따른 인지적 발달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부모의 애정 어린 태도를 바탕으로 함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이다. 즉 청소년들은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공감능력을 발달시켜 나갔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온정적 반응을 통해 다양한 신호들을 해석하고, 적절한 반응을 유추하는 학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인지적 공감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형성한 인지적 공감능력은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서적 표현과 다양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바를 파악하고 원활하게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게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가족생태학(Bronfenbrenner, 1979)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이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내 대인관계 및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큰 자원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미시체계인 가정 내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협동심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미하여,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협동심 수준이 높았고, 협동심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 수준이 높았다. 즉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청소년을 향해 애정을 표현하고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도록 도와 청소년이 또래를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위해 또래와 협력하고자 하는 동기를 키워 줄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직접적인 능력과 기술인 협동적 태도 또한 함양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룹과제가 많은 청소년기 학교 수업을 잘 소화해내고 또래교류의 비중이 큰 학교생활을 만족스럽게 해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이 자녀의 협동심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김연희, 정혜원, 2021),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은 자녀의 이타적 행동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McGrath et al., 2003), 이를 통해 함양된 협동심이 자녀의 학업성취만족과 학업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박유경 등, 2022).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협동심의 상관이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인지적 공감능력을 성장시키는 데도 기여하지만, 무엇보다 또래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친사회적인 태도의 일면인 협동심을 함양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불려와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에게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의 모델이 되어주고 또한 내적 작동 기제가 되어주어 또래와의 협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큰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수준이 높았고, 이에 따라 협동심 수준이 높았으며, 학교생활만족 수준 또한 높았다. 이는 온정적 양육이 어떠한 내적, 관계적 메커니즘을 통해 청소년기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결과이다. 즉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심리를 안정시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인지적 공감능력은 학교 내 대인관계에 작용하여 또래의 요구를 읽고 이해하며 집단에서 요구되는 바에 협력하는 태도가 가능하게끔 해주며, 이를 통해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이 가능해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협동심이 친사회적 성향의 한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학자들이 공감과 친사회적 태도 및 행동의 상관을 밝혀온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이다(Eisenberg & Miller, 1987; Hoffman, 1982). 특히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의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집단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협력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높은 인지적 수준이 요구된다는 Fiebach(2019)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협동을 포함하는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공감의 영향력을 확인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이승미, 이경남, 2008; 조한익, 이미화, 2010; Eisenberg & Fabes, 1990; Paciello et al., 2013)를 지지한다. 특히 조한익과 이미화의 연구(2010)에서는 공감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요소인 관점 취하기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Eisenberg와 Fabes(1990)는 공감이 친사회적 도덕추론을 통해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경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인지적 공감이 협동심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이 연구에서도 이타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의 기저가 되는 협동심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공감의 인지적 측면이 중요한 내적자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의 의미를

발달단계에 맞추어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와 다른 새로운 요소를 다수 가진 중학교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전환기이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학교생활에 만족 또는 불만족 여부에 대해 다른 의미의 학교생활만족과 불만족을 경험할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중학교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식하는 학교생활만족은 좀 더 심층적인 접근과 측정을 요하는 부분이라 사료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생활 적응과 만족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로, 학교생활만족을 1문항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만 측정하였기에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이라는 내적자원을 활용하여 만족할 수 있는 학교생활의 영역과 학업성취를 통해 만족감을 획득할 수 있는 학교생활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는 학교생활만족을 측정하여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이 어떠한 영역의 학교생활만족에 더 크게 기여하고, 또 상대적으로 덜 기여하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는 가족생태학의 관점에서 학교생활만족을 높이기 위한 요인을 탐색하였으며,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도 가족관계인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내적요인에 작용해 학교 내 대인관계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쳐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에 기여하게 되는 과정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학교급제가 전환되는 시점인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전환기의 청소년이 대인관계에 임하는 친사회적인 태도인 협동심과 이를 강화해 주는 인지적 공감능력을 갖추는 것이 스스로의 학교생활만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 발달단계 전환기에 놓여있는 초기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적 기제를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학교로 진학하여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초기 청소년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구 (2003). 협동학습과 협력학습 구조 비교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18, 183-197.
- 구보람 (2013). 초등학교의 친구 개념 및 친구관계와 학교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희, 정혜원 (2021).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2), 957-967.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2.957>
- 김은경 (2009).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내적통제성과 공감 능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37-56.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 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http://doi.org/10.21509/KJYS.2017.03.24.3.313>
- 김태준, 오민아, 이영훈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IEA ICCS 2016-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가화, 이지민 (2014). 부모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4), 997-1013. <http://doi.org/10.13049/kfwa.2014.19.4.997>
- 박선희 (202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친구관계, 스마트폰의존,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3(1), 131-156. <http://doi.org/10.19034/KAYW.2021.23.1.06>
- 박완성, 정구철 (2016). 집단따돌림 유형에 따른 협동 및 공감기술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1), 399-408. <https://doi.org/10.5392/JKCA.2016.16.11.399>
- 박유경, 이금규, 김유정, 이강이 (2022).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협동심이 학업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9(1), 43-60. <http://doi.org/10.15284/kjhd.2022.29.1.43>
- 박은혜, 황성동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123-145.
- 문연심 (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과 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1), 115-143.
- 여성가족부. (2023). 2022년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이명순, 김종운 (2014). 아동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335-356. <http://doi.org/10.35151/kyci.2014.22.1.014>
- 이복희 (2014).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57-74.
- 이승미, 이경남 (2008). 남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1-12.
- 이영효, 정주리 (2017).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39(2), 85-101.
- 이유리, 박은정, 이성훈 (2018).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자녀의 개인내적, 학교생활, 지역공동체적의식의 차이-초 4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 21-40. <http://doi.org/10.22251/jlcci.2018.18.1.21>
- 이주혜, 조영아 (2014).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579-594. <http://doi.org/10.15703/kjc.15.2.201404.579>
- 정송, 우연정, 송주연, 노연경 (2022). 학교급 전환기 학교적응의 유형화 및 종단적 변화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33(2), 183-209. <http://doi.org/10.14816/sky.2022.33.2.183>
- 조한익, 이미화 (2010).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1), 140-159.
- 채영문, 곽수진 (2013). 대학생의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공감능력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2(6), 599-613. <http://doi.org/10.5934/kjhe.2013.22.6.599>
- 통계청. (2022). 사회조사. 대전: 통계청.
- 한국노동연구원. (2017). *한국노동패널 제20차*.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한상철 (2012). *청소년학*. 서울: 학지사.
- 황수영, 윤미선 (2018). 청소년의 공감, 친사회적 행동, 학교행복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24(1), 173-197. <http://doi.org/10.29318/KER.24.1.7>
- Baron-Cohen, S., Wheelwright, S., Spong, A., Scahill, V., & Lawson, J. (2001). Are intuitive physics and intuitive psychology independent? A test with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earning Disorders*, 5(1), 47-78.
- Bartlett, D. J., & Palisano, R. J. (2000) A multivariate model of determinants of motor change for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Physical Therapy*, 80(6), 598-614. <https://doi.org/10.1093/ptj/80.6.598>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ndler, M. J. (1974). Accurate and accidental empath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Orleans.
- Decety, J., & Cowell, J. M. (2015). Empathy, justice, and moral behavior. *AJOB Neuroscience*, 6(3), 3-14. <http://doi.org/10.1080/21507740.2015.1047055>
- Decety, J., & Yoder, K. J. (2016). Empathy and motivation for justice: Cognitive empathy and concern, but not emotional empathy, predict sensitivity to injustice for others. *Social Neuroscience*, 11(1), 1-14. <http://doi.org/10.1080/17470919.2015.1029593>
- Denham, S. A., & Couchoud, E. (1990). Young preschooler's ability to identify emotions in equivocal situations. *Child Study Journal*, 20, 153-169.
- Derscheid, L. E. (1997). Mixed-age grouped preschoolers' moral behavior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1(2), 147-151. <https://doi.org/10.1080/02568549709594701>
- Eisenberg, N., & Fabes, R. A. (1990). Empathy: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 *Motivation and Emotion*, 14(2), 131-149. <https://doi.org/10.1007/BF00991640>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https://doi.org/10.1037/0033-2909.101.1.91>
- Farrant, B. M., Devine, T. A., Maybery, M. T., & Fletcher, J. (2012). Empathy, perspective taking and prosocial behaviour: The importance of parenting practice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1(2), 175-188. <https://doi.org/10.1002/icd.740>
- Fiebig, A. (2019). Social cognition, empathy and agent-specificities in cooperation. *Topoi*, 38, 163-172.
- Gilbert, M. (2009). Shared intention and personal intentions. *Philosophical Studies*, 144, 167-187. <https://doi.org/10.1007/s11098-009-9372-z>
- Hampden-Thompson, G., & Galindo, C. (2017). School-family relationships, school satisfaction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young people. *Educational Review*, 69(2), 248-265. <https://doi.org/10.1080/00131911.2016.1207613>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Hoffman, M. L. (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ur* (pp. 281-313). New York: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B978-0-12-234980-5.50016-X>
- Huebner, E. S., Ash, C., & Laughlin, J. E. (2001). Life experiences, locus of control, and school satisfaction in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2), 167-183. <https://doi.org/10.1023/A:1010939912548>
- Krysan, M., Moore, K. A., & Zill, N. (1990). *Identifying successful families*. Washington, D.C.: Child Trends.
- Li, J., Deng, M., Wang, X., & Tang, Y. (2018). Teachers' and parents' autonomy support and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in junior-high school: Extending the dual-process model of self-determination theory.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68, 20-29. <https://doi.org/10.1016/j.lindif.2018.09.005>
- McGrath, M. P., Zook, J. M., & Weber-Roehl, L. (2003). Socializing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The roles of parents and peers. *Advances in Psychology Research*, 20, 53-59.
- Mussen, P., & Eisenberg, N. (2001). Prosocial development in context. In A. C. Bohart, & D. J. Stipek (Eds.), *Constructive & destructive behavior: Implications for family, school, & society* (pp. 103-126).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433-005>
- Nickerson, A. B., & Nagle, R. J. (2004). The influe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n life satisfaction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 35-60. <https://doi.org/10.1023/B:SOCI.0000007496.42095.2c>
- Paciello, M., Fida, R., Cerniglia, L., Tramontano, C., & Cole, E. (2013). High cost helping scenario: The role of empathy, prosocial reasoning and moral disengagement on helping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1), 3-7. <https://doi.org/10.1016/j.paid.2012.11.004>
- Rogers, C. R. (1975). Empathic: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2), 2-10. <https://doi.org/10.1177/00110000750050020>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 Smith, A. (2006).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in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The Psychological Record*, 56, 3-21. <https://doi.org/10.1007/BF03395534>